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有島武郎 『或る女』 와
박계주 『순애보』 비교연구
- 요코와 옥련을 중심으로 -



2009年 1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金 廷 炫

文學碩士 學位論文

有島武郎 『或る女』 와
박계주 『순애보』 비교연구

- 요코와 옥련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尹 一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12月

釜慶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金 廷 炫

金廷炫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12月



主 審 崔蓮姬 (印)

委 員 尹 一 (印)

委 員 金祥圭 (印)

목 차

* Abstract	ii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5
II. 본 론	10
1.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	10
2. <신여성>과<모던걸>.....	17
3. 『或る女』의 요코와 <모던걸>.....	22
4. 『순애보』의 옥련과 <모던걸>.....	33
5. 요코와 옥련의 결말.....	38
III. 결 론	48
<참고문헌>.....	53

Comparative Studies of Arisima Takeo's
『ARU ONNA』 and GaeJoo Park's 『SOON AE BO』
-Aspects of the characters YOKO and OKRYUN-

Jung Hyun Kim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on Il

Abstract

Arisima Takeo's 『ARU ONNA』 was published with a new title 『ARU ONNANO GRIMPUSE』 in 『SHIRAKABA』 for the first time in 1911. By 1913, the first sequel was completed followed by the second sequel in 1919. This work was not only a masterpiece of Arisima, it was considered a masterpiece of Japan's modern literature and the top bestseller of its time.

As the winner piece of MAEIL SINBO's novel competition, Gaejoo Park's 『SOON AE BO』 was chosen for serial publication from January to June of 1939, and it was published as a short novel in October that same year. Soon after the SOON AE BO publication, a thousand copies of this short novel was sold in just 15 days. This was the Korea's best-selling literary work before the emancipation, therefore, this novel carries a great significance.

『SOON AE BO』's OKRYUN and 『ARU ONNA』's YOKO are characters of exceptional beauty, and they share similar <NEW EDUCATION> backgrounds.

The major focus points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characters are similar time periods, both the best sellers of its time, and the lifestyles and love of the two heroines well beyond their time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lifestyle and love of the two heroines with <new woman>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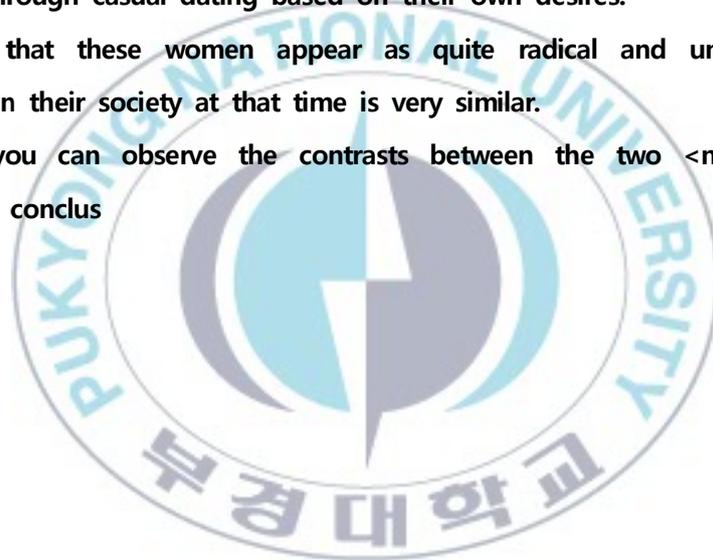
<modern girl> points of views.

This paper will discuss the Korean and Japan's <new woman> as well as the <modern girl>, the term which may have been derived from <new woman>. We will focus on different aspects of <new woman> and <modern girl>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heroines, YOKO and OKRYUN.

YOKO and OKRYUN break away from the conservative sex education. They are not bound by the wishes of the parents on marriage, and they find love through casual dating based on their own desires.

The fact that these women appear as quite radical and unconventional characters in their society at that time is very similar.

However, you can observe the contrasts between the two <modern girl> heroines in conclus



I. 서론

1. 연구목적

有島武郎(1878-1923,이하 아리시마)는 관세국장인 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나 상류층 자제들과 함께 고등교육을 받았다. 순수하고 진지하며 타협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였다.

아리시마는 대학시절, 친구인 森本厚吉와 함께 内村鑑三를 방문하고 감명 받게 된다. 기독교에 입신하게 된 그는 교의에 따라 육욕을 철저히 부정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성욕을 억제하는 것은 어려웠고 오히려 그로 인해 견딜 수 없는 내적 갈등을 느끼게 된다. 아리시마의 자아는 영육 이원으로 찢어져서 항상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다.

아리시마가 진실한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기독교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다. 1903년 8월, 미국 유학을 갔던 아리시마는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으로 동요되기 시작한다. 속죄관에 대한 의문, 미국의 기독교인답지 않은 전쟁에의 대응 등이 요인이 되어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

아리시마는 1909년 神尾安子와 결혼한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성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내적 갈등에 계속 시달리게 된다. 교의에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에 자책감을 느낀 아리시마는 1910년 교회를 탈퇴한다. 그리고 기독교 이념과 반대되는 본능주의 사상으로 향하게 된다. 그것은 성욕을 인간 본연의 성질로 긍정하고 생명주의에 준한 본능적 생활이다.

그리고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지론을 『惜しみな

く愛は奪う(아낌없이 사랑은 빼앗는다)』(1920. 6)에 발표한다. 그가 말하는 사랑은 지식이나 기성의 도덕이나 인습 등에 얽매이지 않는 내발적인 에너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인간 생활에 제일의 이상을 ‘본능적 생활’이라고 하고 최고의 순수한 형으로 나타는 것이 ‘서로의 사랑, 건전한 애인 사이에 결실된 포옹’이라고 했다. 아리시마는 남녀의 사랑은 영과 육의 일치를 이상으로 한 것이고, 이 사랑의 사상을 나타내는 여성이 『或る女(어떤여자)』의 月葉子(이하 요코)이다. 『或る女』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여성 요코를 열기와 절박감을 가지고 썼던 아리시마의 대표작이 되었다.

아리시마의 『或る女』는 1911년(明治44年)에 『어떤 여자의 그림프스(或女のグリンプス)』라는 제목으로 『시라카바(白樺)』에 게재를 시작하여, 1913(大正2年)년 전편을 끝내고, 1919년(大正8年)후편을 완성한다. 이 작품은 아리시마의 대표작만이 아닌, 일본근대문학이 낳은 걸작이라 불리는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다.

‘『或る女』의 여성관은 여성이 남성에게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격을 주장하여 당시 일본인에게 놀랄 만큼의 솔직함으로 다가왔다. 여성이 회노애락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미국여성의 사고방식에서 볼 수 있는 여성관을 보여준다.’¹⁾는 해설과 같이, 아리시마가 이 작품에서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요코의 본능적인 생활이었던 것이다. 요코의 본능적인 ‘남자에 대한 동경·애착심과 복잡한 집착적 복수, 이런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그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여자들의 숙명’²⁾이라는 것이 아리시마의 지론이다.

한편, 『순애보』의 작자 박계주는 1913년 간도(間島) 용정(龍井)에서 태어나, 어릴 적 부친을 잃고 만주 각지를 방랑하며 지내게 된다.

1) 本多秋五 (1962) 『日本文学全集19有島武郎集「解説」』新潮社 p.547

2) 『有島武郎全集 第14巻』(1919. 10. 8일자 浦上后三郎에게 보낸 서한) p.118

1933년 상경하여 서울 감리교 신학교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였다. 학교를 졸업 후 한때는 수도권에서 지내다 월간 『예수』 잡지의 주간을 하며 30여 편의 종교 관계 논문을 썼다.

그 후 여러 잡지를 편집하는 가운데 1938년 매일신보가 현상금 1천만원의 거금을 걸고 모집한 장편소설에 박진(朴進)이라는 이름으로 응모하여 작품 『순애보』가 당선되게 된다. 박계주의 『순애보』는 매일신보(每日新報)의 소설모집에 1등으로 당선되어 1939년 1월부터 6월까지 연재되었고, 같은 해 10월에 매일 신보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순애보』는 1939년 10월 단행본이 출간되자마자 1천부가 보름 만에 팔려나갔다. 이는 해방 이전까지의 한국문학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품으로서 의의를 지니는 작품이다.

『순애보』속 옥련이라는 등장인물은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신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或る女』속 요코와 비슷한 점을 보이는 인물이다. 그녀는 동경유학을 다녀온, 당시 <신여성>이라 불리는 여자로, 친구의 남편을 빼앗고, 거기다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다른 그녀의 생활방식과 사랑방식은 앞의 『或る女』속 요코(첫 번째 결혼 실패 후, 여러 남자와의 연애를 거쳐, 기무라와 약혼 하지만, 결국 쿠라치라는 남자를 선택하는)의 모습과 닮은 점을 보여준다.

위의 두 작품은 1900-1930년대라는 시대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베스트셀러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다. 또한 이 두 소설의 등장인물이 당시 사회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여성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앞의 두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비슷한 시기를 다루는데다,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는 점, 그리고 두 여주인공의 모습들이 당시 시대를 앞서나가는 여성의 생활방식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

서는 두 여주인공의 생활방식과 사랑을 <신여성>과 <모던걸>적 입장에 두고 비교·분석함과 함께, 시대를 앞서 나가며 많은 공통점을 가지게 되는 그녀들이 극명한 결말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或る女』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근대적 자아를 억압하는 사회상황과, 그에 갈등하는 주인공 요코의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읽혔다. 우선, 요코의 성정(性情)과 관련해서 유은경은, 흔히 요코를 本能的 생활자의 전형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도덕을 초월하지 못하는 열등감 의식으로 知的 생활자의 면모를, 구라치의 정식 아내가 아니라 열등감 의식으로 習性的 생활자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³⁾ 또한, 요코의 음란의 피로 말미암은 本能的 생활은 될 대로 되라 의식과 소외자 의식을 조장하여 자립심이 결여된 응석받이를 낳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福田準之輔는 후편의 주제와 작품구성에 주목하면서 요코의 ‘새로운 생활’에 그려진 <生>의 내면구조와 그 세계에 관한 고찰을 다루고 있다. 후쿠다는 후편의 각 부분에서는 요코의 내면 속의 완강함과 집착, 그리고 그 집착으로 인한 광폭함이 나타나 있으며, 요코로 표현된 요염한 정신미와 환영 등 진실한 <生>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⁴⁾ 이처럼 후편 속 요코의 비참한 운명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리시마의 내면세계의 갈등구조를 묘사하는데 치중한 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류리수 또한 「아리시마 다케오의 『或る女』에 나타난 個性 고찰」에서 아리시마가 처절한 내면세계의 갈등 속에서 도출해 내 그의 사상 중 個性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아리시마의 사상에 따라 『或る女』를 분석하는 방식을 통해, 작가가 주장하는 이상적 근대인의 모습을 찾는 시도를 하고 있다.

3) 유은경(1989), 「『或る女』について—習性的 知的生活者としての葉子」, 『語文學研究』 2, pp.227-242

4) 福田準之輔(1991) 「『或る女』について—後編の主題と構成」, 『フェリス女子大学『モ藻』 24, pp.165-181

아리시마의 개성은 '나의 精髓를 의미하며 靈과 肉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외부와 내부가 융합된 하나의 전체 안에서 엄숙히 작용하는 힘의 총화'라 정의하고 있다. 류리수는 내면세계의 갈등으로 고뇌하던 아리시마는 개성에 눈뜨게 되고 철저히 그에 따름으로써 내면세계의 갈등을 극복해 내려는 작가의 투철한 의지를 작품 『或る女』에서 확인하고 있다. 요코는 자신의 개성을 가로막는 외부 세계에 부딪히고 갈등하다가 자신의 개성을 인식하게 된다. 요코는 善 · 惡 · 美 · 醜의 기준을 넘어서서 자신을 불태우며 개성에 몰입하는 경지를 볼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해 자신의 처절한 내면의 갈등을 토로하게 된다. 아리시마는 습성적 생활과 지적 생활로부터 자아에 눈뜬 근대인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외부의 압력에 억눌리지 않고 내면의 갈등을 작품이라는 예술 활동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본능적으로 개성에 몰입하고자 했다고 논하고 있다.⁵⁾

이처럼 『或る女』 연구만큼은 요코의 내면세계를 맴돌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요코의 내면세계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논자는 요코의 본능적 생활자로서의 그녀의 내면세계를 떠나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녀의 생활방식과 사랑방식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박계주의 『순애보』 속 등장인물인 옥련의 모습과 그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순애보』에 관한 선행연구는 작품의 대중성과 통속성에 관한 문제와 작품 속에 나타난 사랑을 통한 기독교적 의의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곽승미는 「『순애보』에 나타난 관계의 미학으로서의 통속성」⁶⁾에서 『순애보』의 대중성은 통속적인 성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며, 통속적 요소와

5) 류리수(1998) 「아리시마 다케오의 『어떤 여자』에 나타난 個性 고찰」, 『일본학보』 제 41편, pp.383-395

6) 곽승미(2004) 「『순애보』에 나타난 관계의 미학으로서의 통속성」 『현대소설연구』 22호, pp.1-14

그것을 배태하게 된 요인에 관한 고찰로 시작하고 있다. 『순애보』는 재미를 추구하고 강한 오락성을 요구하면서도 이상적인 것을 염원하는 인간의 상반된 욕망을 적절히 읽어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각성, 감상성, 이상성으로 수렴시키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부정적 현실을 은폐하고 기존의 체제를 온존시키는 보수성에 이바지한다. 하지만 작가는 독자와 놀이적 관계를 형성하여 재미를 주고 부정적인 현실을 보상하는 위안을 준다. 따라서 『순애보』의 통속성은, 통속적일 만한 소재를 작가가 세계를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각과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하여 과장되지 않게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중들의 요구를 다양한 방향으로 흡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효정은 「1930년대 대중소설의 대중성 연구 -박계주의 『순애보』를 중심으로-」⁷⁾에서 『순애보』의 대중적 전략에 관해 논하고 있다. 김효정은 『순애보』의 대중적 전략은 전형적 인물과 선악이분법의 상투적 구조, 멜로 드라마적 요소와 선정성, 추리적 기법과 영화적 상상력의 도입, 정서적 안정과 낭만적 위안이라는 전략들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신여성>과 연애지상주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며 숭고한 사랑에 대한 논의를 불러오게 되었다. 따라서 결국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되어 독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신춘자는 「기독교와 박계주의 『순애보』 연구」⁸⁾에서 『순애보』에서의 고난과 사랑의 신비주의와 기독교적 의의에 관한 고찰을 하고 있다. 신춘자는 『순애보』를 통속소설로 인정하는 것이 한국문학사에서의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시각을 약간만 달리해 보면 기독교 소설로 보기에 충분한 자

7) 김효정(2006) 「1930년대 대중소설의 대중성 연구 -박계주의 『순애보』를 중심으로-」, 『한국어문연구』 17호, pp.79-102

8) 신춘자(2000) 「기독교와 박계주의 『순애보』 연구」, 『새국어교육』 60호, pp.278-292

격을 지닌 작품이랄 수 있다. 신약의 「요한복음」과 구약의 「아가」서에 뿌리를 둔 기독교 신비주의 신봉자였던 이용도에 영향을 받은 박계주는 이용도의 신비주의를 문학으로 펼쳐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순애보』가 기독교 정신을 대중화시키는 데 한 몫하였고, 기독교 정신의 본질인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순애보』는 기독교 소설로 보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소설이라며 『순애보』를 기독교 소설로 보고 있다.

이처럼 『순애보』의 선행연구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관계적 미학과 통속성에 따른 대중성에 관한 연구들과 기독교 정신에 따른 사랑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경향에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순애보』속 사랑을 더욱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고,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 속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아닌, 선악을 구분하자면 악의 인물에 해당하는 옥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옥련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쾌락과 향락을 즐기는 인물로서 그녀의 모습 속에서 <신여성>과 <모던걸>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두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비슷한 시기를 다루는데다,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⁹⁾였다는 점, 그리고 두 여주인공의 모습들이 당시 시대를 앞서

9) 베스트셀러는 한 나라의 문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사회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따라서 한 시대의 베스트셀러는 그 당시 독자들의 잠재된 욕망과 사회에 대한 응전 방식을 드러내준다.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은 1895년 미국의 문학 잡지 「북맨」의 편집자인 펙(Harry Peck)이 대도시에서 잘 팔리는 책의 목록을 잡지에 실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02년부터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베르너 파울스티히, 이임자 역(1998) 「베스트셀러의 연구의 현 단계」 『베스트셀러의 진실』, 경인문화사, pp.32-33)

그러나 베스트셀러라는 용어가 객관적·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흔히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베스트셀러라 함은 일정한 기간, 비슷한 종류의 책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30년대 『순애보』가 큰 인기를 끈 이유는 이 시기에 자유연애가 대중적인

나가는 여성의 생활방식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여주인공의 생활방식과 사랑을 <신여성>과 <모던걸>적 입장에 두고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에 대해 알아보고, <신여성>에서 파생된 용어로 볼 수 있는 <모던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과연 그녀들의 어떤 점을 <신여성>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모던걸>로 정의내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요코와 옥련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녀들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사회현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연애가 남녀간의 사랑이란 의미로 정착되면서 새로운 지배적 신풍속으로 등장한 것은 초기 일본유학생들이 조선사회에 등장하여 활발한 사회계몽 및 글쓰기를 추진했던 1920년대였다. 이후 교육받은 여성들인 <신여성>들의 사회적 증가는 연애의 사회적 유통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의 인기는 1930년대 말의 암울하고 억압적인 분위기와 출판, 사상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 속에서 출판사들이나 독자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편이었다. 또한 식민지의 억압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좌절감에 빠진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이상을 작품 속에서만나마 실현시켜 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함으로써 대중성 확보에 성공하고 있다.

II. 본론

1. 한국과 일본의 <신여성>

1910년대 일본에는 『청담(靑鞞)』¹⁰⁾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자각과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신여성(新しい女)>이라는 여성들이 있었다. 히라즈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¹¹⁾를 비롯한 이 여성들은 여학교 교육을 받고, 그녀들의 모든 생활을 속박하는 규범인 현모양처주의를 비판하며, 그 족쇄로부터 탈출하고자 하였다.

『청담』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신여성>들은 1916년 『청담』 폐간 이후 잠시 활동을 중단하다가 1919년에 다시 신부인협회를 결성한다. 히라즈카,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江)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시한 신부인협회는 사회적·정치적 권리 획득을 목표로 한 부인 단체로 여성으로서 자각할 것을 주장하며, 연애 없는 결혼을 반대했다.

일본에 있어서 연애의 발견은 신성한 연애라는 개념의 발견이었다고 할

10) 발기인은 주재자 히라즈카 라이초를 비롯하여 야스모치 요시(保持研), 나카노 하쓰(中野初), 기우치 데이(末内錠), 모즈메 가즈코(物集和子) 등 총 다섯 명이며, 이 가운데 모즈메를 제외하고도 모두 일본여자대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됨.

잡지명, ‘세이토’는 18세기 영국 사교계에서 문학에 취미를 가진 여성을 조롱하던 말인 ‘blue stocking’의 역어로, 여자들이 잡지를 발간하면 그런 야유를 듣게 될 게 분명하니 선수를 쳐서 잡지명으로 하자는 이쿠타 조코(生田長江)의 조언을 받아들여 제명.

11) 라이초는 1886년에 태어나 일본여자대학을 졸업했다. 1908년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애제자였던 모리타 소헤(森田草平)와의 자살미수사건은 그녀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다. 1911년에는 청담사를 일으켜 잡지 『청담』을 발간하였다. 라이초가 저술한 「원시 여성은 태양이었다(原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 「신여자(新しい女)」 문장은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근대한국여성운동가들에게 큰 충격과 영향을 미쳤다. 라이초는 1918년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와 모성보호논쟁을 주도하였으며 1920년에는 신부인협회를 결성하여 부인참정권에도 큰 활약을 보였다.

수 있다. 그 기원은 기타무라 도오코쿠(北村透谷)의 평론 「염세시가와 여성(厭世詩家と女性)」에 잘 나타난다.

恋愛は人世の秘鑰なり、恋愛ありて後人世あり、恋愛を抽去りたらむには人生何の色味かあらむ、(中略)恋愛豈單純なる思慕ならんや、想世界と実世界との争戦より想世界の敗將をして立竈らしむる牙城となるはすなわち恋愛なり。12)

인생의 비밀의 열쇠는 연애이다. 연애가 있음으로서 인간의 생과 세상이 있는 것이다. 연애를 빼고서 우리 인생에 어떤 재미가 있으랴. (중략)연애가 어찌 단순한 사모의 정일 수 있으랴. 상상계와 실세계와의 싸움에서 상상계의 패장으로 하여금 틀어 박혀 나오지 않게 하는 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연애인 것이다.

기타무라의 문장에도 이미 영육일치를 향한 지향(단적으로 말하면, 성적 행위는 연애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 나타나지만, 이는 극히 소수의 지식인이나 문학청년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었던 관념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신여성>들에게 있어 연애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높았다. 이러한 <신여성>들은 여성의 자각을 외친 인테리층 페미니스트들을 나타냈다. 페미니스트로서 <신여성>들의 이념과 운동 내용은 일본국가의 여성정책에 도전적이었다. 여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일본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고 현모양처에 국한되지 않는 여성의 자아발견과 재능의 발굴을 중시하였으며, ‘이에(家)제도’¹³⁾와 이중적 성규범으로 제한받는 일반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성적 방종에 대항했다.

1898년 개정된 메이지 민법은 가부장적 부권제도를 보다 강화시켰다.

12) 北村透谷 (1892) 「厭世詩歌と女性」, 『女學雜誌』第303

13)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당시에 채용되었던 가족제도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보다 더 좁은 범위의 사람을 호주와 가족으로 삼아 하나의 이에(家)에 소속시켜 호주에게 그 집안의 통솔권을 부여했던 제도를 말한다.

천황을 정점으로 한 家와 그 호주의 상징인 父와 夫의 권리를 확장하여 질서의 안정을 꾀하는 가운데, 여성은 보다 약한 존재로 재구성되며 비호의 이름 아래, 권리가 없는 자로서 행동과 발언의 제한을 받았다. 그 일면을 살펴보면 가족은 호주의 의지에 반하여 그 거처를 정할 수 없으며, 가족이 혼인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아내의 재산은 남편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여성에 대해서는 간통죄라는 이름으로 그 죄를 엄중히 물어,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간통죄로 형벌에 처해진 경우, 즉, 상대 여성이 기혼자로 그 여성의 남편에게 고소당한 경우에만 이혼 청구가 가능했는데, 그도 父兄 혹은 친척의 대리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반면, 남자는 첩이나 성매매를 오히려 자랑거리의 하나로 생각하기도 했으며, 첩의 아이는 아내 허락 없이도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¹⁴⁾

당시 일본여성들의 생활은, 어떤 권리도 없이 행동과 발언에 제한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남자는 호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자유로이 첩을 가지고 성매매를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부권제도에 종속되어 그 제도의 틀에 맞게 스스로를 맞춰가는 길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문물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신분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가 열렸고, 이른바 <신여성>이 탄생하게 된다. ‘신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 및 외국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이며, 구체적인 존재양태로 말하자면 사회운동가(부인운동가), 직업부인, 무직자, 신가정부인, 여학생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즉, <신여성>은 신식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신식교육의 수준은 고등보통학교와 그 이상의 학교를 졸업’¹⁵⁾한 여성으로

14) 박유미(2008) 「『세이토(靑鞛)』의 ‘모성’담론」, 『日語日文學』 第39輯, pp.182-183

규정하고 있다. 주로 일제강점기에 많이 사용되던 용어로 이 용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널리 통용되었다. 특히,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일엽¹⁶⁾이 『신여자』 제2호에 「신여자 선언」을 발표하는 등 <신여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1910년대 쓰보우치 쇼요(坪内逍遙)가 ‘新しき女’(새로운 여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행한 뒤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여류문인 히라츠카가 『청담』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본격적인 <신여성>론을 전개하게 된다. 하지만 ‘<신여성>들은 『청담』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新しき女>와 같이 결사나 조직체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1920-1930년대 하나의 사회계층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¹⁷⁾

한국의 『신여자』가 김일엽에 의하여 1920년에 창간된 것을 감안하면, 일본과 한국의 <신여성>론은 약 10년간의 시차가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15)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2005) 「한국 ‘신여성’과 ‘근대’의 만남」, 『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p.197

16) 김일엽은 1896년 목사인 김용겸의 장녀로 태어났다. 본명은 김원주로 일엽(一葉)은 이광수가 일본의 근대여성작가 히구치 이치요(樋口一葉)와 비교하여 지어준 필명이다.¹⁾ 1906년 김일엽은 삼승보통학교에서 기독교 교육과 영어 교육도 받았다. 1913년부터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1918년 공부를 마치고 다음 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에이와학교(英和學校)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김일엽은 이화 학당 시절에 약혼한 적이 있는데 정확히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파혼했다.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그녀 나이 22세가 되던 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연희전문학교의 교수인 이노익과 결혼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22살이나 되었다. 남편의 경제적인 원조로 1920년 3월 문예잡지 『신여자』를 발간하게 되지만, 시인 임장화와의 간통 사건이 발단이 되어 남편과 이혼하기에 이르고, 이 이혼으로 인해 잡지 『신여자』는 경제적인 원조가 끊기어 4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게 된다. 1921년 일본으로 다시 건너간 김일엽은 당시 큐슈제국대학의 학생이자 은행 총재의 아들 오타 세조(太田清藏)와 교제하는데 그의 부모님의 엄격한 반대로 인해 두 사람의 결혼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22년 9월 오타 사이에서 사내아이를 낳은 그녀는 아들을 오타의 친구 집에 맡긴 채로 귀국한다. 1927년 1월 8일의 『조선일보』에 「나의 정조관」을 발표하여 조선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다음해 1928년 불교에 출가하게 된다. 1927년부터 잡지 『불교』의 문예란을 담당하고, 수많은 잡지에 소설이나 시나 평론 등에 활발하게 글을 발표했다.

17) 주14)의 p.198

10년간은 한국 <신여성>론의 선두주자들이 여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유학을 마친 뒤 귀국하기까지의 기간이기도 하였다. <신여성>이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역사적 배경은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동안 전개되었던 여성교육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여성교육운동은 선교의 한 수단으로 여성교육에 착안했던 기독교 선교사들과 국가의 자강을 위한 여성들의 구실에 주목했던 애국계몽운동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들이 추구했던 여성교육의 목표가 그들 간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은 비로소 전통적인 이성관의 한계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초기의 여성교육운동은 민중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일부 개화된 양반 관료층의 부녀들이나 천민층의 고아·기아들을 대상으로 한 극히 제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여성교육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호전되면서, 광범위한 계층의 여성들이 신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 당시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전통적인 여성, 즉 구여성에 대립되는 <신여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국의 여성들이 받았던 신교육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습득의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는 서구의 사상과 본격적으로 접함으로써 새로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구한말에서 191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신여성>층의 형성기였다고 한다면, 1920년대는 <신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신여성>론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의 이목을 모으던 시기였다.

1920년대는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정책에 의해서 조장된 관념상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풍미하던 시기였고, 이 무렵에는 전통에 대한 부정의식이 사회일반에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신여

성>론이 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에서 파행적인 사회화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대한 회의감을 품게 되었으며, 근대적 학교교육과 동경유학을 통하여 자유연애의 새로운 남녀관계에 눈뜨게 된 것이다.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배필을 만나 자식을 낳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당연한 의례였던 시기에,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유연애를 하다가 자유결혼을 하여 신식가정을 꾸민다는 생각은 새롭고도 매력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연애는 그 새로움의 중심에 있었다.

연애는 서양의 'love'의 일본식 번역어인 채로 조선에 전해졌다. 연애는 1910년대 근대적인 남녀 관계를 일컫는 독립적 용어로 정의되기보다 이미 존재했던 결혼이나 사랑의 감정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만큼 연애는 낯설었기에 정의되는 것조차 혼란스러웠던 용어였다.

<신여성> 사이에는 결혼의 전제로서 연애를 이상시하는 풍조가 강해지고 연애는 <신여성>과 그 상대인 지식계층 남성에게는 하나의 긍정적인 가치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일부의 성도덕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연애는 서서히 조선 사회에 뿌리를 내려갔다. 1920-1930년대의 여성잡지뿐 아니라 일반 잡지에도 연애와 결혼은 커다란 테마였다. 그것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폐색상황에 놓인 식민지 조선의 청년남녀도 게드문 주체성 발휘의 장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학한 <신여성>들에게 가족의 속박을 벗어난 새로운 환경은 연애 실천의 장으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나혜석과 김우영, 이광수와 허영수 등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유학생끼리의 연애도 많았다.

한편, 이들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실천되었던 <신여성>론은 단순히 서구 모방적인 공허한 관념상의 것만은 아니었으며, 그들의 성장과정, 자기체험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들은 스스로를 선각자라 자처했

으나, 세인들은 <신여성>들의 무절제한 사생활에 주목하여 강력한 비난을 퍼붓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신여성>층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특히, 대중계몽 및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한 조직화된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여성운동가들은 일부 <신여성>들의 무절제한 사생활을 비판하면서 여성문제에 전반적인 사회구조적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신여성>인 그녀들의 특징으로는 첫째,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전통적인 사상에서 탈피한 새로운 여성이라는 것이다. 즉, 전통이나 인습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로 보고 있다.

그리고 둘째, <신여성>은 지식계급의 일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히라츠카, 김일엽, 나혜석 등을 비롯한 <신여성>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여학교를 졸업하여, 유학을 다녀온 재원에 속한 여성들이다.

셋째, <신여성>은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늘 자기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넷째, <신여성>은 여성 해방을 위해 계몽운동을 한 단체의 일원이다.

즉, 가족제도로부터 벗어나 여성으로서 자각할 것을 주장하며,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반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며, 여성해방 사상을 주장하며 계몽운동에 앞장선 여성을 <신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여성>과 <모던걸>

<모던걸>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에 걸쳐 유행한 용어로, 1910년대에 대두한 <신여성>과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 <모던걸>은 <신여성>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용어, 혹은 반대로 <신여성>과의 관련성이 단절된 용어로 논해지는 등 이 두 용어는 상관성을 가지고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모던걸>이라는 용어는 기타자와 슈이치(北沢秀一)가 일본의 『女性』지 1924년 8월호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1926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기타자와에 의하면 <모던걸>은 그 이전 세대인 <신여성>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모던 걸이란 대체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서 말하려는 모던걸은 소신여성이 아니다. 자각한 여성도 아니다. 물론 여권 신장 논자도 아니며 하물며 부인 참정권 논자도 아니다. 그리고 모던걸이라고 해도 미혼의 젊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근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를 존중하는 아주 새로운 여성이다. 그리고 인간이다. 전시대의 신여성인 노라¹⁸⁾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모던걸은 이미 인간이다. 거기에 그녀들의 생명이 있다.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내용을 기초로 해서 모던걸은 새롭게 태어난 것인데, 그들을 무엇보다도 특징짓고 있는 것은 그 경향이 민중적이며 세계적이라는 것이다.¹⁹⁾

18) 『인형의 집』은 1879년 작품으로 헨리 입센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떨치게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자 노라는 신여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여성해방 운동이 각처에서 불타 오르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희생하며 살던 노라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은 이제까지 단지 인형 같은 아내로서 귀여움을 받는 존재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살 것을 원하며, 애원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들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나는 내용의 작품이다.

19) 장영순(2008) 「1920년대 여성문화와 미디어의 시선」, 『일본학보』 제74집 2권, p.295

기타자와는 <모던걸>을 자기를 존중하고 혹은 남성과 대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과 도덕, 인습의 개념으로부터 해방된 여성으로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明治(메이지, 1868~1911)에서 大正(다이쇼, 1912~1925)로 이행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출현한 <신여성>이나 자각한 여성과는 달리, <모던걸>은 부인 참정권이나 여권 확장론과 같은 이론도, 페미니즘의 이상도 갖지 않았다고 한다.

앞 시기의 <신여성>과는 달리 이들은 자각이나 의식이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인간적 욕망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할 따름이었다. 기타자와는 <모던걸>을 근대의 시대정신을 기준으로 <모던걸>을 근대서의 담지자로 정의한다면, 연령이나 혼인 여부 따위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미혼 여성뿐 아니라 기혼부인도 <모던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31년 출판된 『모던용어사전(モダン用語辞典) 제 13권』인 『근대용어사전 집성(近代用語の辞典集成)』(一誠社)에서는 <모던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모던걸, 모던보이

근대여성 및 남성, 신여성 및 신남성. 대정말기부터 소화에 걸쳐 유행한 말로 경조부박(輕佻浮薄), 향락적인 젊은 남녀에 대한 경멸어. 원래 참의미로는 근대사상에 눈뜨고, 교양이 있는 청년남녀를 말하는 것이었다. 모던걸에 대해서는 「모던가에루 : 모던개구리(毛断蛙)」 「모던아가씨(毛断嬢)」 「이미 남편이 있다(もう旦那がある)」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1931년 출판된 『일본가정대백과사전』(제4권)에서는 모던걸이란 단어는 대정시대 말기부터 소화시대에 걸쳐서 유행한 단어로 경조부박, 향락적인 젊은 여자. 특징은 단발, 양장, 치켜 올라간 눈썹, 불연지, 루즈 등의

메이컵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인 히라츠카는 <모던걸>을 ‘신여성이라는 모태에서 태어난, 신여성의 사랑하는 딸(新しい女の母胎から生まれた、新しい女のまな娘なのす)’²⁰⁾이라 하여, <신여성>의 연장성에서 <모던걸>을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신여성>과 <모던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수진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사회적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하던 1910년대의 신여성운동과 달리, 1920년대의 모던걸은 서구식 생활방식과 성적자유를 구가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상징’²¹⁾이었고, 또한 ‘기타자와는 앞 시기의 신여성이 지식층의 일부로서 특권 계급에 속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던걸은 민중적이고 세계적인 경향을 띤 현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기타자와는 모던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낡은 전통과 인습에서의 해방을 들었다. 여성을 억압했던 전통 사상은 모던걸에 이르러 그 도덕적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전통 시대의 여성이 자기 생애의 대부분을 타인을 위해, 즉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모던걸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존중하며 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을 요구를 내세우고 자유로뻏문에동상은 모이렇게 모던걸은 좋고 싫은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관습적이고 타협적인 태도를 싫어하며, 전통의 기생(寄生)적 생활에서 독립하려 하고, 일정한 향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사상에 젖은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혐오를 받게 된다.’²²⁾ <신여성>들은 여성의 자각과 사회·정치적 실현을 추구했지만, 이들의 후세대인 <모던걸>은 일상생활에서의 동경의 긴자거리를 걷는 무명의 젊은 여성들이거나 소설 속 주인공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20) 平塚らいてう (1987) 「かくあるべきモダン ガール」, 『平塚らいてう評論集』, 岩波文庫, pp.222-230참조

21) 김수진(2006) 「신여성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 영국, 일본, 그 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호, pp.389-390참조

22) 김경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도서출판 푸른역사, p.25

이처럼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반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며, 인간(여성)으로서 자각한 여성이 <모던걸>이라는 정의는 가족제도로부터 벗어나 여성으로서 자각할 것을 주장했던 <신여성>의 정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운동의 참가여부와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과감함과 성적 자유의 구가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수진은 ‘모던걸은 서구식 외모를 꾸미고 경제적 독립과 성적 자유를 구가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으며, 모던걸은 머리와 서구식 복장 및 육체로 대표되었고 공격적이고 에로틱하며 무정부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들이라고 간주되었다’²³⁾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던걸>의 특징을 <신여성>과의 차이점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 <모던걸>은 <신여성>처럼 사상이나 이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조금도 전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여성이라는 것이다. 즉, 구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신여성>들과 달리 <모던걸>은 이미 전통이나 인습으로부터 해방된 존재로 보고 있다.

둘째, <모던걸>은 <신여성>처럼 지식계급의 일부가 아니라, 민중적이라는 점이다. <신여성>의 대부분은 여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생활을 거친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셋째, <신여성>은 연애 없는 결혼을 반대했지만, <모던걸>은 자유연애를 통한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과감함과 성적자유를 구가한다는 점이다. <신여성>은 급격한 사회변화과정에서 파행적인 사회화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대한 회의감을 품게 되었으며, 근대적 학교교육, 유학을 통하여 자유연애의 새로운 남녀관계에 눈뜨게 된 것이다. 부모님이 정해주는 배필을 만나 자식을 낳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23) 주21)의 p.391참조

인생의 당연한 의례였던 시기에, 자유의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유연애를 하다가 자유결혼을 하여 신식가정을 꾸민다는 생각은 새롭고도 매력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모던결>은 자유연애를 통한 결혼만이 아닌,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과감함과 성적자유를 구가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즉, <모던결>은 전통과 인습에서 해방됨은 물론 서구식 생활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고, 향락적이며 성적으로 자유로움을 구가한 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或る女』의 요코와 <모던걸>

『或る女』는 1901년 9월부터 1902년 7월까지 요코라는 여성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或る女』의 작품 동기는 작자 아리시마가 삿포로 농학교 졸업 후 친구 모리 히로시(森廣)의 약혼으로 미국으로 향하던 중 에지마루(繪島丸)의 사무장 다케이 겐자부로(武井勘三郎)와 연인사이가 되어, 미국에 상륙하지 않고 그대로 귀국해 동거한 사사키 노부코(佐佐木信子), 이미 구니키다 돗포(國木田獨歩)의 전처였던 이 자유분방하고 기이한 여성을 훑쳐보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리시마는 ‘명백히 말해 나는 그런 여자를 가장 싫어하지만 동시에 가장 끌린다. 나는 이 모순을 풀고 싶어 참을 수 없다.’²⁴⁾며 그 제작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에는 각각의 모델이 있다. 요코는 그 사건의 주인공인 사사키 노부코가, 요코의 첫 남편 기베(木部)는 구니키다 돗포가, 구라치(倉知)는 실제 여객선의 사무장이었던 다케이 겐자부호가 모델이다. 약혼자 기무라(木村)의 친구는 아리시마의 친구 모리 히로시가 모델이므로, 고토(古藤)는 자연히 작자 자신이 된다.

작자 아리시마는 요코를 ‘스스로 자각하여, 각성하고 게다가 스스로도 그 방향을 찾지 못해 사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지 모르는 시대에 태어난 한 기승스럽고 예민한 급진적인 여성’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요코는 자유분방하고 시대를 앞서 가는 여성이하고 시그녀는 기베와의 사랑에 빠지고 어머니멘르는 를 무릎 쓰고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않고 얼마 안 가 기베와 헤어지게 된다. 그런 요코를 짝사랑하는 사람은 기무라였다. 기무라는 요코와의 결혼을 원했고 요코는 기무라를 을 기 위해 미국행 배를 탄다. 그 배에서 요코는 야성적인 남자 구라치와

24)本多秋五 (1962) 『日本文学全集19有島武郎集「解説」』,新潮社, p.553

운명적인 만남을 한다.

그리고 본능대로 구라치와의 사랑을 택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대로 애인관계가 된 그들의 사랑은 지속되지 못하게 되며, 후편의 요코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내용이다. 구라치와 동거를 시작하게 된 후편의 요코는 구라치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하게 된다.

1900년대 일본 여성들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아가 통제된 삶을 강요당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현모양처로 규정되어야만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현모양처주의²⁵⁾는 메이지 민법에 의해 규정되어 그 의미가 강화된다.

메이지 민법은 모든 국민이 이에(家)에 소속될 것, 더욱이 그 이에(家)의 구성원은 가장의 통제 하에 놓일 것을 법적으로 결정했다. 메이지 근대는 민법이 법적으로 보증하는 가부장제도와 그것을 보완하는 현모양처주의 교육에 의해, 여성을 이에제도(家制度)²⁶⁾ 내부에 소속되는 여성과 배제되는 여성, 즉 어머니·처·딸이라고 불리는 여성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만 인지되는 창기(娼妓)로 분리했다.²⁷⁾

따라서 당시 법으로 여성의 무능력을 명시하던 사회에서 이혼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표현수단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자아를 강요당하던 시기의 개성 넘치는 요코라는 인간상이 일본근대문학의 역사에서 가지는 의의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자각한 여성을 전적으로 묘사하고

25) 1896-1898년에 교부된 수정민법을 보통 '메이지 민법'이라고 부르는데, 만30세 이하인 남자, 만25세 이하 여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 못하거나, 아내의 '법적무능력규정' 등의 규정이 있었다.

26) 대일본제국헌법 당시에 채용되었던 가족제도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보다 더 좁은 범위의 사람을 호주와 가족으로 삼아 하나의 '이에(家)'에 소속시켜 호주에게 그 집안의 통솔권을 부여했던 제도를 말한다.

27) 칸 사토코(2006) 「근·현대 일본의 연애 사정:한류(韓流)열풍의 배경」, 『여성학논집』 제23집 1호, pp.257-258

있는 점일 것이다.

奥野武男는

요코는 <신여성>이다. 작자는 요코를 스스로 자각하여, 각성하고 게다가 스스로도 그 방향을 찾지 못해 사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지 모르는 시대에 태어난 한 기승스럽고 예민한 급진적인 여성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²⁸⁾

고 하여 요코를 <신여성>으로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요코는 <신여성>일까?

다음의 요코의 화장하는 모습과 의상은 그녀의 자아의 표출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요코가 어떤 방식으로 자아를 표출하였고, 그 모습으로부터 어떠한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女のチャームといふものが、習慣的な絆から解き放されて、その力だけに働く事の出来る生活がそこにはあるに違ひない。才能と力量さへあれば女でも男の手を借りずに自分を周りの人に認めさす事の出来る生活がそこにはあるに違ひない。女でも胸を張つて存分呼吸の出来る生活がそこにはあるに違ひない。少とも交際社会のどこかではそんな生活が女許されてるに違ひない。葉子はそんな事を空想するとむずむずする程快活になつた。そんな心持ちで古藤の言葉などを考へて見ると、丸で老人の繰言のやうにしか見えなかつた。葉子は長い黙想の中から生き生きと立ち上つた。而して化粧をすます為に鏡の方に近付いた。木村を浪人とするのに何んの屈託があらう。木村が自分の浪人であるのは、自分が木村の妻であるといふ程軽い事だ。木村といふ仮面.....葉子は鏡を見ながらさう思つて微笑んだ。而して 乱れかかる額際の髪を、振り仰いで後ろに撫でつけたり、両方の 髪器用にかき上げたりし、良工が細工物でもするやうに楽しみながら元気よく朝化粧を終えた。濡れた手拭で、鏡に近づけた眼のまはりの百粉を拭ひ終ると、唇を開いて美しく揃った歯並みを眺め、両方の手の指を壺の口のやうに一所に集めて

28) 奥野武男 (1959) 「『或る女』の早月葉子」, 『國文學』 4-6号, p.85

爪の掃除が行き届いてるか確かめた。29)

여자의 매력이라는 것이 습속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생활이 그 나라에는 있음에 틀림없다. 재능과 역량만 있으면 여자라도 남자의 손을 비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활이 그 나라에는 있음에 틀림없다.

여자도 가슴을 펴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생활이 여자에게 있음에 틀림없다. 요코는 이런 공상을 하자 몸이 근질근질해질 정도로 쾌활해졌다. 그런 기분으로 고토의 말을 생각해보니 마치 노인의 뉘두리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요코는 긴 상념 속에서 생기를 띠며 일어섰다. 그리고 화장을 하기 위해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기무라를 남편으로 삼는 데 무슨 문제가 있으랴? 기무라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은 내가 기무라의 아내라는 사실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기무라라고 하는 가면.’요코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생각하고 미소 지었다. 그러곤 고개를 젓혀 흐트러진 이마의 머리를 뒤로 쓸어 붙이기도 하고, 양쪽의 귀밑머리를 땀이 있게 뒤로 넘기기도 하며, 흐트러진 이마 쪽 머리를 고개를 쳐들어 뒤쪽으로 빗질하여 넘기거나, 양쪽 귀밑머리를 쓸어 올리거나하며, 숨씨 좋은 장인이 세공품을 만들 듯 즐거워하며 기분 좋게 아침 화장을 끝냈다. 젖은 손수건으로 거울을 쳐다보며 눈언저리의 분을 닦아내고, 입술을 벌려 아름답게 나열된 치열을 바라보고, 양쪽 손가락을 단지 아가리처럼 둥글게 말아 손톱정리가 잘되었는지 확인했다.(번역 : 유은경³⁰⁾)

위 본문 속 요코의 화장법에 대해 살펴보자. 화장을 마친 후 젖은 수건으로 눈언저리의 분을 닦아내는 것은 눈언저리를 얼굴에 바른 분 색깔보다 어둡게 표현함으로써 윤곽이 또렷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오랫동안 사람은 화장을 할 때 눈과 입 주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다. 입과 눈은 감각 기관으로서 외부를 느끼고 정보를 얻고, 시선을 바꾸며, 말을 하는 자기

29) 有島武郎(1980~1988) 『有島武郎全集』, 筑摩書房, p.61.(이하 텍스트)

30) 아리시마 다케오(2006) 『어떤여자』, 도서출판 향연, 옮긴이 유은경(이하 텍스트의 번역은 유은경)

표현의 장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요코가 의상을 고르는 모습이다.

その日の夕方、葉子は船に来てから始めて食堂に出た。着物はおもいきって地味なくすんだのを選んだけれども、顔だけは存分若くつくつてゐた。二十を越すや越さずに見える、眼の大きな、沈んだ表情の彼女の襟の藍鼠はなんとなく見る人の心を痛くさせた。31)

그날 저녁, 요코는 배를 탄 뒤 처음으로 식당에 나갔다. 기모노는 아주 수수하고 칙칙한 색을 골랐지만 얼굴만은 한껏 젊어 보이게 화장을 했다. 스물을 넘겼을까 말까로 보이는, 큰 눈에 차분한 표정의 그녀가 입은 기모노의 남회색 깃은 웬지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껏 젊어보이게 화장을 한 요코는 그 화장의 화사함과 반대로 옷은 남회색의 차분한 것으로 고른다. 이때 요코는 번민 끝에 기무라라는 약혼자가 있는 여성으로서 마음을 정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혼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 마치 초혼인 듯한 이미지로 화장을 하고, 결혼할 여성으로서의 조신함을 복장에 담았던 것이다. 이처럼 요코는 화장과 의상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인 아버지와 여류기독교의 선각자로, 기독교 부인동맹의 부회장을 맡고 있던 어머니에게서 자란 요코는, 15살 때, 하카마를 끈으로 매는 대신에 버클로 매는 방법을 고안하여 한때 여학생들 사이에 유행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는 눈에 띄는 여자였다. 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에노의 음악학교에 들어가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지 두 달 사이에 교사가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실력이 되었지만, 어느 날 케벨 박사가 “네 악기는 잔피로 울리는 거지 천재성으로 울리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자, “그런가요?”라고 대수롭게 말하면서, 바이올린을 창문 밖으로 던진 후 그대로 학교를 그만뒀다.

31) 텍스트 p.62

버린 용기 있는 여자였다. 요코는 우울한 날이면 샴페인을 마시고, 의류나 신변잡화를 사는 등 당시 여성들로는 상상하기 힘든 생활을 보여준다. 소비적이고 쾌락을 즐기는 모습은 <모던걸>의 특징 중 하나로 요코가 쇼핑을 즐기고 샴페인을 마시는 모습 속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そんな事を思うと葉子は悒鬱が生み出す反抗的な気分になって、湯をわかさせて入浴し、寢床をしかせ、最上等の三鞭酒を取りよせて、したたかそれを飲むと前後も知らず眠ってしまった。.....(中略)香水や、化粧品や、酒の香をごっちゃにした暖かいいきれがいきなり古藤に迫ったらしかった。ランプがほの暗いので、部屋のすみずみまでは見えないが、光の照り渡る限りは、雑多に置きならべられたなまめかしい女の服地や、帽子や、造花や、鳥の羽根や、小道具などで、足の踏みたて場もないまでになっていた。その一方に床の間を背にして、郡内のふとんの上に搔卷をわきの下から羽織った、今起きかえったばかりの葉子が、はでな長襦袢一つで東ヨーロッパの嬪宮の人のように、片臂をついたまま横になっていた。そして入浴と酒とでほんのりほてった顔を仰向けて、大きな目を夢のように見開いてじっと古藤を見た。その枕もとには三鞭酒のびんが本式に氷の中につけてあって、飲みさしのコップや、華奢な紙入れや、かのオリーブ色の包み物を、しごきの赤が火の蛇のように取り巻いて、...

이런 생각을 하자 요코는 우울이 낳은 반항적인 기분이 되어, 물을 데우게 하여 목욕을 한 다음 자리를 펴게 해서 최상급의 샴페인을 구해다 과하게 마시고는 세상모르게 뿔아떨어지고 말았다.... (중략)향수랑 화장품이랑 술 냄새가 뒤섞인 후끈한 공기가 고토를 확 덮쳤다. 램프 불빛이 약해 방 안 구석구석까지 보이지는 않았으나 불빛이 닿는 범위에서 보건대 오염함을 풍기는 여인네 옷감이랑 모자랑 조화랑 깃털이랑 잡화 같은게 발 디딜 틈도 없이 잡다하게 널려 있었다. 그 한편에는 방금 일어난 요코가 도쿄노마를 등진 채 격자무늬 비단포대기 위에 얇은 솜 잠옷을 겨드랑이 아래까지 걸친

채 화려한 나가주반 차림으로 동유럽의 후궁처럼 한쪽 팔
꿈치를 피고 모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목욕과 술로 밧그
레해진 얼굴을 들고 꿈꾸듯이 눈을 크게 뜨며 고토를 물
끄러미 쳐다보았다. 머리맡에는 샴페인 병이 정식으로 얼
음통 속에 담겨 있었고, 술이 남아 있는 컵과 화사한 지
갑과 예의 올리브빛 보따리를 빨간색 오비가 붉은 뱀처럼
휘휘 감고 있었는데,...

위 본문 속 샴페인을 즐겨 마시는 요코는 일찍이 서구의 생활방식을 즐겼
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와인생산은 메이지시대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산와인
의 수요가 적고, 각지에서 아주 조금씩만 만들어지고 있었다.
1980년대 경부터 본격적인 와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
졌다...하지만 수입된 서양술은 1900년대부터 맥주를 시작으로
판매되어, 와인과 샴페인 등이 판매된 것은 1900년이 시작이
다.”³²⁾

1900년대 초반의 사람인 요코는 최상급의 와인을 정식으로 얼음통에 넣어
차갑게 마신다.³³⁾ 이처럼 요코는 샴페인은 차갑게 해서 마시는 술임을 알
고, 자연스럽게 샴페인을 마시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생활적인 면에서도
일찍부터 서구의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 해볼 수 있다.

또한, 요코는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 과감함과 향락적인 면을 드러낸다. 그
녀는 芸者를 은근히 부러워하며, 일본에서 여자가 여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芸者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飾った芸者達が磨き上げた顔をびりびりするような 夜寒に惜しげもなく伝

32) 『明治文化全編 別巻 明治事物起原 (下)』(1969), 日本評論社, p.1334

33)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방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와인으로 최적의 샴페인 맛을 즐기
기 위해서는 마시기 30분에 찬물과 얼음이 담긴 통에 담귀 놓는 것이 좋다.

法に曝して、さすがに寒気に足を早めながら、呼ばれた所に繰出して行くその様子が、まざまざと履物の音を聞いたばかりで葉子の想像には描かれるのだった。合乗りらしい人力車の轍の音も威勢よく響いて来た。葉子はもう一度これは屈強な避難所に来たものだと思った。この世隈では葉子は眈を反して人から見られる事はあるまい。34)

화사하게 차려입은 게이샤들이 얼얼한 밤기운에 정성껏 화장한 얼굴을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맵시 있게 드러낸 채 추위에 종종 걸음 치면서 불러준 연회장으로 향해 달려가곤 하는 모습이, 생생한 계다 소리만으로도 상상되는 것이었다. 이인용 인력거 바퀴 소리도 기세 좋게 들려왔다. 요코는 다시 한번 여기야말로 가장 안전한 피신처라고 생각했다. 이 지역에서는 요코를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약혼자인 기무라를 버리고 구라치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된 요코는 임시거처로, 구라치의 단골 술집에 몇 일간 머물게 된다. 그 곳에 머물게 된 요코는 위 인용문과 같이 자신을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는 그 곳을 가장 안전한 피신처라 여기며, 芸者들이 치장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생기발랄한 느낌을 가지며, 그녀들의 화장과 의상을 오히려 부러워하며, 芸者들의 치장을 흉내 내 보기도 한다.

芸者のちよいちよ衣着らしい、黒襦子の襟の着いた、伝法な身幅の狭い着物に、黒襦子と水色匹田の昼夜帯をしめて、どてらをひかけていたばかりでなく、髪まで矢張り櫛巻きにしていたのだった。ええ、いい構うものか、どうせ鼻をあかさせるならのっけからあかさせてやろう、そう思って葉子はそのままの姿で古藤を待ち構えた。35)

34) 텍스트 p.141

게이사들의 단출한 외출복 같은, 검정 비단깃이 달린 맵시 있는 가는 줄무늬 기모노에 안팎이 검정비단과 헛단시보리로 된 오비를 매고서 도테라를 걸친 채 머리까지 빗으로 말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좋다. 무슨 상관이나. 어차피 놀라게 할 바에야 처음부터 깜짝 놀라게 해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요코는 그 차림새 그대로 고토를 기다렸다.

요코는 약혼자였던 기무라의 친구 고토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술집으로 부른다. 기무라를 속이고 구라치와 동거사실을 알게 된 고토이므로, 그녀는 오히려 더욱 대담하게 입고 있던 袴者の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고토를 맞이한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양장차림과 단발을 선호했던 <모던걸>의 의식과 흡사한 양상이다. ‘단발이나 양장은 일찍부터 여성의 자기주장의 상징으로서 여성해방론자들에 의해 주창되어 왔고, 많은 비판론 중에서도 단발이나 양장에 대해서만은 <모던걸>의 요소로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³⁶⁾ 당시는 현모양처주의 교육에 의해, 여성을 ‘이제제도(家制度)’ 내부에 소속되는 여성과 배제되는 여성, 즉 어머니·처·딸이라고 불리는 여성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만 인지되는 창기(娼妓)로 분리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요코는 외양의 변화와 삶의 양식의 변화를 보수적인 사회가 용납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자신의 개성을 화장과 의상, 그리고 생활방식으로서 표현한 여성이다.

그녀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향락을 요구하며, 자신을 한두 단 더 높는데 있는 것 같은 긍지를 느끼며,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는 자신감을 넘치도록 가지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요코의 신체표현의 과감함과 성적자유를 구가하는 모습들이다. 이는 <모던걸>의 부정적인 면으로 간주되는

35) 텍스트 p.152

36) 장영순(2008) 「1920년대 여성문화와 미디어의 시선」, 『일본학보』 제74집 2권, p.306

점으로 요코의 모습 속에서 그 양상을 볼 수 있다.

母にさえある他の男によって生んだ子だと告白した。実際葉子はその後、母にその告白を信じさす程の生活を敢えてしていたのだ。37)

어머니에게까지 다른 남자의 애라고 고백했다. 실제로 요코는 그 후 어머니가 그 고백을 믿을 만한 생활을 구태여 해왔던 것이다.

今起きかえったばかりの葉子が、派手な長襦袢一つで、東ヨーロッパの 殯宮の人片臂をついたまま横になっていた。そして入浴と酒とでほんのりほった顔を傾けて、大きな眼を夢のように見開いてじっと古藤を見た。38)

방금 일어난 요코가 도쿄노마를 등진 채 격자무늬 비단포대기 위에 얇은 솜잠옷을 겨드랑이 아래까지 걸친 채 화려한 나가주반 차림으로 동유럽의 후궁처럼 한쪽 팔꿈치를 피고 모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목욕과 술로 말그레해진 얼굴을 들고 꿈꾸듯이 눈을 크게 뜨며 고토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요코는 첫 남편 기베와 헤어진 후 여러 남자를 만나는 방탕한 생활 속에서, 성적자유를 구가하게 된다. 그리고 기베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임신한 사실조차 숨기며,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또한,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이 될 기무라의 친구, 고토를 유혹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과감히 드러내는 모습도 보인다. 요코의 이러한 행동들은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과감함과 향락적인 면을 드러내며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모던걸>에 가까운 모습이라 설명할 수 있다. 그 근

37) 텍스트 p.11

38) 텍스트 p.20

거로 <신여성>들은 페미니스트로서 ‘이에(家)제도’와 이중적 성규범으로 제한받는 일반여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성적 방종에 대항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일본국가의 정책에 반대하고 현모양처에 국한되지 않는 여성의 자아발견과 재능의 발굴을 중시하는 양상을 보이는 여성들이다. 따라서 요코는 여성해방을 위한 사상이나 이론을 가지고 페미니즘 운동에 앞장선 <신여성>보다는 일찍이 서구의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생활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고,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과감함과 성적자유를 구가하는 특징을 가진 <모던걸>에 가까운 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요코는 1910년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어떻게 192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모던걸>로 이야기될 수 있을까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에 대해 기타자와의 말을 빌리자면, ‘개체로 독립하고 싶은 욕구는 세계 모든 젊은 여성에게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모던걸로 일컬을 수는 없지만 근대성을 띤 여성들은 많이 잠재해 있었다. 이들은 이미 준비를 끝마치고, 단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³⁹⁾라는 주장처럼 요코는 <모던걸>이라는 특징의 단어로 불리우지 못했을 뿐 <모던걸>의 특징을 가지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던 잠재된 <모던걸>이 아니었을까?

당시 1910년대 일본에는 <신여성>이라 불리는 여성들이 있었지만, 이 여성들은 여성의 계몽운동 및 사회진출을 외친 페미니스트 집단일 뿐, 단지 서구의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이고 여성으로서의 육체미와 여성성을 강조했다던 <모던걸>과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으므로, 요코는 단지 <모던걸>이라는 단어로 명명되기 이전의 이미<모던걸>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9) 김경일(2004)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도서출판 푸른역사, p.26

4. 『순애보』의 옥련과 <모던걸>

박계주의 『순애보』는 해방 이전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하여 발매한 지 7개월 만에 7판을 발행하는, 당시로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이 소설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희생으로 타인(민족)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논에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인 명희와 혜순이 아닌, 선과 악으로 구분하자면 악의 인물에 해당하는 옥련이라는 등장인물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옥련은 빼어난 미모를 갖추고, 동경유학을 다녀온 여성으로 신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或る女』속 요코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인 혜련의 남편을 빼앗고, 거기다 남편의 친구인 형석과 불륜을 저지르는 인물이다. 옥련은 담배와 맥주를 즐기고, 요정에 가는 등, 그녀의 생활방식과 사랑방식은 앞의 『或る女』속 요코의 모습과 닮은 점을 보여준다.

다음의 인용문은 옥련의 생활방식과 생각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식모더러 수건에 물을 적셔오라 하여 부은 눈과 얼굴을 닦고 나서 누운 대로 담배⁴⁰⁾를 꺼내서 한대를 피워문다. 남의 점심때가 그에게는 조반 때였으며,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화장까지 하고나니 벌써 오후 두시가 되었다.

맥주⁴¹⁾병 두 개와 글라스 컵 하나를... (밑줄 :논자)⁴²⁾

40) 담배는 우리나라에는 1950년대 임진왜란 시 혹은 그 직후인 1968년경 일본을 통하여 소개되었다고 한다. 광해군 초 담배씨를 도입하여 재배를 시작하였고 이후 담배가 급속히 퍼져 17세기 중반 이미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었고, 담배 재배도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권련의 보급은 개항이후부터 이루어졌다. 일제강점 후 1921년 연초 전매법을 공포하여 연초전매를 시작하였고, 해방 후 1948년 재무부 산하에 전매국을 설치하여 최근의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이르고 있다. (이이화(2005) 『한국사 나는 이렇게 본다 서울』 길,p.305)

41) 맥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구한말이었다. 1876년 개항 이후 서울과 개항지에 일본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일본 맥주들이 흘러 들어왔는데, 초기에 들어온 것이 '삿뽀로'

위인용은 옥련이 권련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는 부분이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담배를 피우고, 맥주를 마시는 것은 당시 일부 부유층과 상류층에 한정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녀의 생활방식은 당시 일반적인 여성들의 생활과는 다른 생활임을 알 수 있다.

“남편 동무 녀석들 그것 다 뭘 해?” 그렇게 적적하면 그자들을 불러들여 마작도 하고 춤도 추며 인생을 엔조이할 것이지, 넌 뭘 그리구 앉았니, 인생은 짧다 했는데 실컷 향락해야 할 것 아니냐. “입센의 《인형의 집》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노리개도 되고 인형도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남자가 여자의 노리개도 되고 인형도 되도록 역사를 바꿔 놔야 해.”

입센의 『인형의 집』은 1879년 작품으로 헨리 입센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떨치게 한 작품이다. 한국에서는, 1921년에 『매일신보』에 <인형의 가(家)>란 제목으로 소개되었고, 이에 앞서서 일본에서는 1892년 처음 소개되어 1920년대 이르러 입센의 유행시대를 맞이하게 된다.⁴³⁾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자 노라는 <신여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여성해방운동이 각처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희생하며 살던 노라가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은 이제까지 단지 인형 같은 아내로서 귀여움을 받는 존재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이자 어머니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 살 것을 원하며, 애원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아이들을 남겨둔 채 집을

맥주'였고, 그 후 1900년을 전후해서 '에비스 맥주'와 '기린 맥주'가 들어왔다. 당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계층은 일부 부유층과 상류층에 한정되어 있어 1905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맥주의 소비량은 연간 1570kl에 불과했으나, 1910년을 고비로 일본 맥주 회사들이 서울에 출장소를 내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1920년대에는 수입주류 가운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42) 박계주(2003) 『순애보』, 一信書籍出版社(이하 텍스트) p.218.

43) 김미지(2003) 「<인형의 집> '노라' 수용 방식과 소설적 변주 양상-1920-1930년대 소설과 평문에 원용된 '노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pp.173 - 197 참조

떠나는 내용의 작품이다. 『인형의 집』을 여성문제 그리고 당대 여성의 현실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입장이 많았고, 옥련 또한 남자도 여자의 노리개가 되고 인형이 되도록 역사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당시 여성의 문제를 예민하고 급진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시대 곧 근대를 열기 위해서는 여성문제가 혁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여성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옥련은 이러한 여성문제에 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쾌락과 향락에 치우친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맥주가 여러 잔 왔다갔다했다. “자, 담배 한대 피우시지요.”
 강형석이는 담배갑에서 한 대를 뽑아 옥련에게 권한다.
 옥련이는 아무말 없이 뽑아든다. 강형석이는 자기도 한 대 빼어물고, 라이터를 켜서 옥련이 문 담배에 대면서,
 “오늘 이렇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았으니 저도 그 호의를 갚아야지요.” 하며 히죽이 웃는다.
 “어떻게 갚으실 테예요?”
 “내일 저녁에 제가 한턱 하지요”
 “호호호호. 무엇이든지 제가 원하는 대로 하실 테예요?”
 “장부 일언이 지천금이라고 레이디와의 약속을 어기거나 원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참 내일 좋은 서양 영화가 있는데 같이 가보시지 않으렵니까?”
 “고작 영화예요? 한턱 하신다던 것이”
 “영화 구경 뒤에 물론 다른데 모시지요. 원하신다면 요정에 라도.....”
 “참, 기생들이 노는 걸 한 번 보고파요”
 “그럼 저를 어떻게 따라 나서려 하십니까?”⁴⁴⁾

남편 철진이 없는 틈을 타 남편의 친구 형석을 유혹하여 요정에서 향락을 즐기는 옥련은, 자유연애주의자, 향락주의자로서의 절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당시 <모던걸>을 비판선상에서 보는 이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44) 텍스트 p.203

며,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서 당시 <모던걸>들을 향락주의자 · 쾌락주의자라 지칭하기도 했다.

‘제에길, 내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사서 번민하는 거야. 인생은 쾌락이다. 쾌락 없는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어’이려고 보니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같았고, 인생 생활의 선구자인 것 같았다.‘내 마음대로 육체의 향락을 취해 보는 것이다. 한끝, 내키는 대로, 아무 구속 없이....이 것이 행복이다, 자유다, 인생의 기쁨이다.’45)

또한, 옥련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남편의 친구인 형석과 만나 불륜을 일삼는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육체적 쾌락을 즐기며, 인생을 즐긴다.

그날 밤, 그들은 주지 욕립 속에 묻혀 환락에 취해 있었다. 요리를 날라오는 중국인 보이가 방 안에 드나들거나 말거나 형석이는 옥련이를 무릎에 앉히어 끌어안고 뺨을 비비대며..... 46)

옥련은 남편이 집을 비울 기회만 있으면, 형석을 만나 “정신적인 연애는 연애가 아니요, 육욕의 만족을 피차 느낄 수 있는 애욕만이 진정한 연애”라는 이야기를 하며, 성적자유를 구가한다.

다음은 옥련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모던걸>적 사고방식임을 알 수 있는 근거로서 그와 상반되는 당시 조선 가정부인의 생활 모습을 담은 잡지의 글을 인용한다.

일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감정을 많이 억제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남편 얼굴을 마주 대할

45) 텍스트 p.213

46) 텍스트 p.217

틈도 없이 요리와 세탁 등으로 분주합니다. 아침을 다 먹으면 점심준비,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준비(중략)조선부인들은 하루 종일 음식 준비에 쫓기는 것입니다. (중략) 부인들의 취미생활을 보면 내지 부인들처럼 꽃꽂이, 다도 등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요즘 신교육을 받은 신여성 사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47)

이처럼 당시 대부분의 부인들의 생활은 가족을 위해 개인의 감정은 억제된 채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사 일에 시달렸으며, 여유를 가지며 자신의 취미생활 등을 위한 시간은 가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순애보』속 옥련은 가사 일은 식모가 대신하고, 자신은 화장을 하면서 치장하는 여유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며, 요정으로 놀러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옥련은 위의 당시 보통의 부인과는 다른 <모던걸>로 불리우는 삶을 살았던 여성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7) 모던일본사(2007) 『일본잡지모던일본과조선1939』, 도서출판어문학사, pp.208-210

5. 요코와 옥련의 결말

요코와 옥련은 <모던걸>로서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게 되지만, 이들의 결말은 상반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或る女』의 요코는 병으로 괴로워하다 처참한 결말을, 『순애보』의 옥련은 이와 반대로 용서와 회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원인과 작가적 원인으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지만, 그 중 작가적 원인으로 기독교라는 공통점을 지닌 작가라는 점이 요코와 옥련의 결말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는바, 요코와 옥련의 결말을 비교함에 앞서 먼저, 기독교 작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아리시마와 박계주의 기독교적 인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리시마는 일반적으로 ‘크리스트교적 작가’로 불려지고 있다. 아리시마는 한 때,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⁴⁸⁾의 계승자로 까지 불려질 정도로 열렬한 크리스트교인이었다.

아리시마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을 사랑의 본질의 중핵에 두고 ‘자신을 사랑하고픈 욕구’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섭취’

48) 일본의 종교 사상가·비평가로서 근대 일본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치무라는 다카자키한(高崎藩)의 무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877년 삿포로 농학교(札幌農学校)에 입학했으며 이 학교에서 1878년 세례를 받았다. 1882년 외국 선교사의 도움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독자적인 교회를 세웠다. 1884~1888년 미국에 가서 공부를 계속한 뒤 일본에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1891년 천황의 도칙어 봉독식에서 ‘불경사건’을 일으켜 사직했다. 저서로는 『그리스도교도의 위안(基督信徒の慰め)』(1893), 『구안록(求案録)』(1893), 『나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교도가 되었나(余は如何にして基督信徒となり乎)』(1895) 등이 있다. 그의 자유로운 종교 사상으로 인해 주위에 마사무네 하쿠초(正宗白鳥), 무샤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実篤),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 등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으며 이게 커1910년 영향력 있는 그 「시라카바(白鶯)를 창간하여 그들의 휴머니즘 사상을 널리 전파했다.

하여 ‘외계를 사랑하는 동화하는 일’에 의해 ‘성장하고 충실’하는 것으로 사랑은 ‘주는 본능’이 아닌 ‘빼앗는 강렬한 힘’이라고 주장한다.

愛は本能である。(中略)私の愛は私の中にあつて最生の生長と完成とを欲する。私の愛は私自身の外に他の対象を求めはしない。(中略)それは奪うことによつてである。(中略)愛の本体は惜しみなく奪ふものだ。(中略)愛は放射するエネルギーでもなければ与える本能でもない。愛は掠奪する烈しい力だ。49)

사랑은 본능이다. (중략)내 사랑은 내 안에서 최상의 성장과 완성을 요구한다. (중략)내 사랑은 내 자신 외에 다른 대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략)사랑의 본체는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다. (중략)사랑은 방사하는 에너지도 아닐뿐더러 주는 본능도 아니다. 사랑은 약탈하는 맹렬한 힘이다.

「본능적 생활자」, 「이기주의자」로서의 근거는 위 인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신의 아들인 예수그리스도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부정하고, 아리시마의 예수상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빼앗는’ ‘사랑’을 전개하는 「이기주의(愛己主義)」자였다. 따라서, 크리스티교인이었던 아리시마가 추구했던 것이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복음)이었지만, 이탈후의 그가 취한 것은 자유인 「로퍼」였던 인간 예수였다.’50)

이처럼 아리시마의 기독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애타주의(愛他主義)가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애기주의(愛己主義)자로서 『或る女』속 요코의 모습에서 그 양상을 볼 수 있다.

기존 사회질서에 반발하면서 자기를 지켜 내려 하는 요코의 강렬한 자기

49) 『全集』 8, pp.177-178

50) 尹一 (2000) 「有島武郎のイエス論」, 『日語教育』 17輯, p.565

애가 아낌없이 빼앗아야 할 사랑의 대상인 남자들에게 옹아가면서 그들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으로 전개된다. 하지만 요코에게 있어서 이런 본능적인 생활은 오히려 자아의식을 짓밟는 원인이 되었고, 그녀의 삶 자체를 잡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요코는 파멸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비극적 종말로 끝맺는 요코의 운명이라는 단순한 시점을 뛰어넘어서 아리시마가 추구했던 ‘로퍼’로서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아리시마는 본능적 삶에 자기를 연소한 요코에게서 자유인을 기대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작품 『순애보』의 초판본의 서문에서 춘원 이광수는 아래와 같이 소설을 평가하고 있다.

‘박계주군은 박진이라는 필명으로 매일신보에 『순애보』를 연재하였다. 현상소설로서는 너무도 정신과 테마가 컸었다
..... 사랑은 주는 것이요, 가지는 것이 아니다. 한량없이 주고 주어 마침내 목숨까지 주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다.’⁵¹⁾

이에 대해 문예비평가 신동한은

크리스찬인 작자는 그리스도의 ‘주라!’ 하신 사랑의 원리의 신봉자요, 그가 소설 『순애보』를 쓴 것을 자기가 체득한 이 정신을 인류 동포에게 들려주자는 것이다. 인류동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정신을 나누게 하자는 것이다.⁵²⁾

이와 같이 고난과 희생정신을 강조하는 박계주의 기독교 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이용도 목사의 고난과 사랑의 신비주의 사상이다.

51) 신동한(1999) 「박계주의 작품세계 -장편 『순애보』를 중심으로-」, 『순애보』 一信書籍出版社, p.407

52) 주51)의 p.407

이용도 목사는 한국 교회사에 고난과 사랑의 신비주의를 전하던 인물로 남아있다. 그는 신약의 요한복음과 구약의 아가서에 뿌리를 두고 그의 신비주의적 사상을 펼쳐 나갔다.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며, 죄인인 인간을 여전히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을 가져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인간섬김이 절정을 이룬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십자가 사건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다.

이용도 목사의 신비주의는 이런 기독교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한다. 그의 신비주의의 특징은 ‘고난 받으시는 예수 신비주의’이다.

박계주는 이 사랑과 고난의 신비주의를 부르짖던 이용도가 중심이 되어 창설한 ‘예수교회’라는 새 종파의 창설 멤버였다. 그 후 박계주는 4년 동안 예수교회의 창립 멤버로 중앙선도원의 기관지 월간 「예수」의 책임 편집자로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순애보』라는 작품을 구상하여 마침내 1938년 매일신보에 응모하여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박계주 기독교 정신의 뿌리는 예수교회와 예수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용도 목사, 그의 사랑과 고난의 신비주의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가 쓴 소설인 『순애보』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특히 희생적인 사랑이 이용도 목사의 고난의 사랑의 신비주의에 나타난 사랑의 작품화란 개연성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순애보』속 장혜순은 자신의 친구 옥련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의 남편과 친구 옥련이 여행길에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해 피를 많이 흘려 생명의 위독함을 알게 된다. 장혜순은 결국 자신의 피를 수혈하여 주기로 결심한다. 이 역시 고난과 사랑의 신비주의

를 실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철진은 자신이 배신했던 혜순으로부터 고귀한 사랑을 받은 후에 거듭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인격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낙동강 수재민을 위해 애쓰다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된다. 옥련 역시 혜순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새사람이 된다. 옥련은 철진의 죽음으로 번민하던 중에 참회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람이 된다. 철진과 옥련에 대한 혜순의 사랑은 지고지순하고 열렬하며 희생적인 사랑이다. 곧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적 사랑의 발현인 것이다.

즉, 등장인물 옥련은 이러한 아가페적 사랑으로 인해 용서받고 회개하여, 『或る女』속 요코와는 반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요코와 옥련의 결말은 작가의 기독교적 인식의 차이가 결말에 투영된 것이다. 아리시마의 「애기주의」와 박계주의 「아가페」, 이 상반된 기독교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요코와 옥련의 결말 또한 상반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각각의 결말부를 살펴보면, <모던걸>로서의 공통점을 가지는 이들이 결말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원인에 대해 작가적 측면과 함께 시대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或る女』의 결말부는 요코가 병으로 괴로워하며 목숨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의 처절한 모습이다.

葉子は誰にともし何にともなく息氣を引き取る前に内田の来るのを祈った。然し小石川に住んでいる内田は中々にやって来る様子を見せなかった。

「痛い痛い痛い…… 痛い」

葉子が前後を忘れ我れを忘れて、魂を搾り出すようにこう呻く悲しげな叫び声は、大雨の後の晴れやかな夏の朝の空気をかき乱して、惨ましく聞え続けた。53)

요코는 아무한테나 아무것에게나 숨을 거두기 전에 우치다가 오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러나 고이시카와에 살고 있는 우치다는 좀처럼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아, 아악 아악…… 아악.”

정신을 못 차린 채 앞뒤 가리지 않고 영혼을 쥐어 짜듯 신음하는 요코의 애처로운 울부짖음은, 호우가 내린 뒤의 맑게 갠 여름의 아침 공기를 휘저으며 끊임 줄 모르고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위 본문 속 요코의 결말은 비극이다. 그녀는 영혼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치다(内田)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우치다는 기독교의 지도자로 어릴 적부터 요코를 자신의 딸과 같이 귀여워하며, “하나님 이외의 유일한 동반자”라고까지 칭송하지만 요코의 문란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첫 남편 기베와의 이혼)에 크게 실망하여 요코를 내치게 되는 인물이다.

작품 속 우치다는 원래 실존하던 인물로, 당시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인 우치무라를 가리키며, 그는 작자 아리시마가 기독교인이 되기까지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리시마가 요코의 결말을 비극으로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작가적 측면과 시대적 측면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겠다.

우선, 작가적 측면에서 아리시마가 배교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그가 기독교적 인도주의자가 아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로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진 인도주의자로서의 면모가 결말부에 드러나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53) 텍스트 p.306

다카스꼬지로(高須芳次郎)는 ‘아리시마가 『或る女』에서 창부형의 여자를 극명하게 그려내고 있지만, 아리시마의 생각은 그 본래 지니고 있는 인도주의 사상으로부터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⁵⁴⁾고 하며 비극적 결말의 원인을 그의 인도주의적 사상이라 지적하고 있다.

지금껏 아무리 오염한 여자를 서술했다하더라도, 아리시마는 이전부터 그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창부형의 여자는 그 영혼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는 한 끝내지 않는다’라는 그의 생각이 결말부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 측면에서, 여성이 쉽게 진정한 자아를 발현할 수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해 볼 수 있다. ‘1900년대 일본여성들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아가 통제된 삶을 살았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현모양처로 규정되어야만 그 존재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메이지 근대는 민법이 법적으로 보증하는 가부장제도와 그것을 보완하는 현모양처주의 교육에 의해, 여성을 이에 제도(家制度)내부에 소속되는 여성과 배제되는 여성, 즉 어머니·처·딸이라고 불리는 여성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서만 인지되는 창기(娼妓)로 분리했다.’⁵⁵⁾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결국 작자 자신은 어떠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말을 하지 않은 채, 창부형 여자 요코를 향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불행한 비극의 여성이지만, 결코 숙명적으로 희롱당하는 여자는 아니다. <모던걸>로서 그녀의 파멸의 길은 외부로부터 강제적인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길인 것이다.

다음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요코에 반해, 모든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를 받는 옥련의 모습이다.

54) 高須芳次郎(1939), 「有島武郎に描かれた女性」, 『むらさき』, p.84참조

55) 칸 사토코(2006) 「근·현대 일본의 연애 사정:한류(韓流)열풍의 배경」, 『여성학논집』 제23집 1호, pp.257-258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닐 사람이 어디 있겠소.
세상에는 완전하다고 자기를 자랑 할 사람은 없을 것이요.
서로 불완전한 사람이면서, 서로 부족한 인간이면서 누가
누구를 책하고 욕하고 벌을 주겠소. 자, 일어나요”⁵⁶⁾

옥련이는 철진에게서 봉변을 당할 뻔하던 그날부터 근신 생활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날을 보내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회의 눈물을 가져보기도 그때가 처음이었다. 더구나 철진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그녀는 한없이 울었으며, 그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물론, 옥련은 남편 철진의 장례식장에 참석할 면목도 없고 하여 군중들 뒤에 섰다가 영구차가 떠날 때 자동차로 뒤를 따라가서 장지만을 알아두었으며, 이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수도원으로 가는 길이기에 최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의미에서 철진의 무덤을 찾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옥련은 가옥 소유권 서류를 혜순에게 내어준다.

이처럼 옥련의 결말은 회개와 속죄를 통한 용서로 마무리된다. 『或る女』 속 요코가 비극적 결말임에 반해, 『순애보』 속 옥련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산다. 이러한 결말에 대해, 먼저 작가적 측면에서, 작자 박계주가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或る女』의 작자 아리시마가 배교한 기독교인임에 반해, 박계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예수교회 창립 멤버로, 중앙 선도원의 기관지인 월간 『예수』의 편집 책임자로 있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글을 쓰면서 『순애보』를 구상하여 작품을 썼으며, 신약의 「요한복음」과 구약의 「아가」서에 뿌리를 둔 기독교 신봉자였던 이 용도 목사의 영향을 받았다.”⁵⁷⁾

56) 텍스트 p.356

이와 같이 기독교에 깊은 뿌리를 둔 그이기에 기독교주의적 인도주의 사상으로 옥련의 결말을 마무리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순애보』는 작품 전편을 통해서 기독교적 사랑, 박애주의, 크리스찬 휴머니즘을 드러내고 있기”⁵⁸⁾때문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말일지도 모른다. 기독교적 인도주의자인 작자에게 있어 옥련의 용서는 당연한 결말인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 측면에서, 『순애보』의 시대적 배경이 1920-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或る女』속 시대적 배경이 1910년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선을 허용할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이다. 1920년대는 일제의 이른바 문화통치정책에 의해서 조장된 관념상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풍미하던 시기였다. 이 무렵에는 전통에 대한 부정의식이 사회일반에 팽배해 있었다. 당시 1930년대 조선의 모습은 서구 문물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신분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가 열렸고, 근대사상의 유입으로 인한 자유연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고, 이는 독자들의 현실 순응에 대한 욕구와 역행하고자 하는 양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 결말을 육체적·본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여성인물이 징벌을 받는 구조를 취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어 질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57) 신춘자(2000) 「기독교와 박애주의 『순애보』 연구」, 『새국어교육』 제60호, pp.282 -283
58) 주57)의 p.282

Ⅲ. 결론

지금까지 『或る女』의 요코와 『순애보』의 옥련을 살펴보았다. 이 두 작품은 20세기 초반이라는 시대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베스트셀러로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다. 또한 이 두 소설의 등장인물이 당시 사회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여성이 등장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녀들은 성을 속박하는 교육(현모양처사상)에서 탈피하여, 부모님이 원하는 결혼이 아닌, 자유연애를 통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사랑을 찾는 인물들이다.

『或る女』의 요코는 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요코는 기베와의 사랑에 빠지고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않고 얼마 안 가 기베와 헤어지게 된다. 그런 요코를 짝사랑하는 사람은 기무라였다. 기무라는 요코와의 결혼을 원했고 요코는 기무라를 만나기 위해 미국행 배를 탄다. 그 배에서 구라치와 만나 동거를 한다. 요코는 생활방식에서도 서구의 방식을 일찍 받아들여, 우울한 날이면 샴페인을 정식으로 마시며, 쇼핑을 즐긴다.

옥련 또한 요코와 마찬가지로 동경유학을 다녀온 재원이다. 옥련은 맥주와 담배를 즐기며, 취미로 골프를 친다. 옥련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남편의 친구를 유혹하여 요정에서 향락을 즐기는 인물이다. 그녀는 여성문제에 관한 관심보다는 쾌락과 향락에 치우치며, 자유연애주위자·향락주의자로서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그녀들은 그 시대 유일하게 여자로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던 기생·芸者를 흠모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코

는 芸者들이 치장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생기발랄한 느낌을 가지며, 그녀들의 화장과 의상을 오히려 부러워하며, 芸者들의 치장을 흉내내 보기도 하며, 여자가 여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芸者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옥련 또한 요정에 놀러가 기생과 어울리며 자신의 미모를 뽐내는 모습도 보인다.

이처럼 『或る女』의 요코와 『순애보』의 옥련은 여성해방을 위해 페미니즘 운동을 주도하던 <신여성>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다.

그녀들은 전통과 인습에서 해방됨은 물론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향락을 요구하며, 성적으로도 자유로움을 구가한다.

가족제도로부터 벗어나 여성으로서 자각할 것을 주장하며,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반전통적인 특성을 지니며, 신체를 표현함에 있어서의 과감함과 성적자유의 구가함이 <모던걸>의 특징이며, 요코와 옥련은 이러한 <모던걸>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모던걸>인 그녀들의 결말은 대조적인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유는 기독교와 반기독교라는 작가적 측면과 당시 1910년대의 일본과 1930년대의 한국이라는 사회적·시대적 측면에서 그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먼저, 작가적 측면에서 아리시마는 배교한 기독교인이다. 이는 그가 기독교적 인도주의자가 아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로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진 인도주의자로서의 면모가 결말부에 드러나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지금껏 아무리 요염한 여자를 서술했다하더라도, 아리시마는 이전부터 그에 대한 심판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창부형의 여자는 그 영혼의 목적에 도달하지 않는 한 끝내지 않는다’라는 그의 생각이 결말부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상반적으로 박계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예수교회 창립 멤버로, 중앙 선도원의 기관지인 월간 『예수』의 편집 책임자로 있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많은 글을 쓰면서 『순애보』를 구상하여 작품을 썼으며, 신약의 「요한복음」과 구약의 「아가」서에 뿌리를 둔 기독교 신봉자였던 이용도 목사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 깊은 뿌리를 둔 그이기에 기독교주의적 인도주의 사상으로 옥련의 결말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순애보』는 작품 전편을 통해서 기독교적 사랑, 박애주의, 크리스찬 휴머니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어찌면 당연한 결말일지도 모른다.”는 신춘자의 지적처럼, 기독교적 인도주의자인 작자에게 있어 옥련의 용서는 당연한 결말인 것이다. 또한, 이들 작가의 기독교적 인식의 차이가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或る女』의 작가 아리시마와 『순애보』의 작가 박계주 모두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지만, 기독교적 인식의 차이는 확연하다.

아리시마의 기독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애타주의(愛他主義)가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애기주의(愛己主義)자로서 『或る女』속 요코의 모습에서 그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요코는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애기주의자로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만족하고,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인물이다. 하지만 요코에게 있어서 이런 본능적인 생활은 오히려 자아의식을 짓밟는 원인이 되었고, 그녀의 삶 자체를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계주는 사랑과 고난의 신비주의를 부르짖던 이용도가 중심이 되어 창설한 ‘예수교회’라는 새 종파의 창설 멤버였다. 그 후, 박계주는 4년 동안 예수교회의 창립 멤버로 중앙선도원의 기관지 월간 『예수』의 책임 편집자로 있었다. 그리고 그 동안 『순애보』라는 작품을 구상하여 마침내 1938년 매일신보에 응모하여 당선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박계주 기독교 정신의 뿌리는 예수교회와 예수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이용도 목사, 그의 사랑과 고난의 신비주의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가 쓴 소설인 『순애보』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특히 희생적인 사랑 이용도 목사의 고난의 사랑의 신비주의에 나타난 사랑의 작품화란 개연성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옥련은 혜순의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로 새사람이 되어, 철진의 죽음으로 번민하던 중에 참회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간다. 이와 같은 철진과 옥련에 대한 혜순의 사랑은 지고지순하고 열렬하며 희생적인 사랑이다. 곧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가페적 사랑의 발현인 것이다.

그리고 시대적 측면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1900년대 일본여성들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아가 통제된 삶을 살았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현모양처로 규정되어야만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결국 아리시마는 어떠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말을 하지 않은 채, 창부형 여자 요코를 향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불행한 비극의 여성이지만, 결코 숙명적으로 희롱당하는 여자는 아니다. <모던걸>로서 그녀의 파멸의 길은 외부로부터 강제적인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길인 것이다.

반면, 『순애보』의 시대적 배경은 1920-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20년대의 한국은 일제의 문화통치정책에 의해서 조장된 관념상의 자유주의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풍미하던 시기였다. 이 무렵에는 전통에 대한 부정의식이 사회일반에 팽배해 있었다. 당시 1930년대 한국은 서구 문물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신분상의 차이에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가 열렸고, 근대 사상의 유입으로 인한 자유연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었다. 따라서 독자들의 현실 순응에 대한 욕구와 역행하고자 하는 양가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 결말을 육체적·본능적 쾌락을 추구하는 여성인물이 징벌을 받는 구조를 취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어 질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그녀들은 <모던걸>로서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처럼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차이점을 지닌다.



<참고문헌>

<텍스트>

- 有島武郎(1980) 『有島武郎全集』 筑摩書房
박계주(2003) 『순애보』 一信書籍出版社

<단행본>

- 모던일본사(2007)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1939』 어문학사
문옥표 외 (2003) 『신여성』 도서출판 청년사
明治文化研究会(1969) 『明治文化全編別巻 明治事物起原(下)』 日本評論社

<논문>

- 高須芳次郎(1939) 「有島武郎に描かれた女性」(『むらさき』)
本多秋五 (1962) 『日本文学全集19有島武郎集「解説」』 新潮社
尾崎秀樹(1978) 「モダン・ガール」(『国文学』第23卷4号)
吉津隆勝(1982) 「有島武郎と愛—「借みなく愛は奪ふ」—考察—」
(『国語国文研究と教育』 11号)
井上理恵(1986) 「有島武郎論—初期作品にあらわれた女たち—」(『キリスト教育』
5号)
福田準之輔(1991) 「『或る女』について—後編の主題と構成」(フエリス大院)
井上和枝(2005) 「한국 ‘신여성’과 ‘근대’의 만남」(한일역사 공동연구보고
서 제5권)
칸 사토코(2006) 「근·현대 일본의 연애 사정:한류(韓流)열풍의 배경」
(『여성학논집』 제23집 1호)

- 유은경(1989) 「『或る女』について—習性的・知的生活者としての葉子—」,
 (『語文学研究』 2, 효성여자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류리수(1998) 「아리시마 다케오의 『어떤 여자』 에 나타난 個性 고찰」
 (『일본학보』 제 41편)
- 노영희(1998) 「일본 신여성들과 비교해 본 나혜석의 신여성관과 그 한
 계」 (『日語日文学研究』 第32輯)
- 신춘자(2000) 「기독교와 박계주의 『순애보』 연구」, (『새국어교육』 제60
 호)
- 윤 일(2000) 「有島武郎のイエス論」 (『日語教育』 17輯)
- 허배관(2003) 「키타무라 도코쿠의 연애관 분석-명치초기의 여성관을 중심
 으로-」 (『日本文化研究』 第9輯)
- 김미지(2003) 「<인형의집> ‘노라’ 수용 방식과 소설적 변주 양상-1920~1930
 년대 소설과 평문에 원용된 ‘노라’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4집)
- 김수진(2006) 「신여성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회적 차이 - 영국, 일본, 그
 리고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호)
- 신하경(2007) 「アポリアとしての「モダンガール」」 (『한국일어일문학회 발표
 요지집』)
- 박유미(2008) 「『세이토(靑鞆)』의 ‘모성’담론」, (『日語日文学』 第39輯)